

주말경제

Economy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
기아 '씨드' 잇단 호평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럽전력 차종 '씨드(cee'd·사진)'가 해외 언론으로부터 잇따른 호평을 받고 있다.
27일 기아차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전문지 '오토투어링(Autotouring)' 4월호에 게재된 비교평가 결과 '씨드'가 토요타 '아우리스'와 폭스바겐의 '골프'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오스트리아에서 발행되는 '오토투어링'은 매월 발행부수가 250만부에 이르는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지다.



'씨드'는 디자인·안전·환경, 공간 편의성, 주행성능, 비용 등의 4개 항목 중 3항목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벤츠 'SLK 에디션 10'



폭스바겐 '골프 GTI 파렌하이트'

한정 판매라면... 더 잘 팔린다

■ 수입차 업계 '한정판 마케팅' 붐

르노삼성 'SM5LE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등
극소량만 생산... 소비자들에 희소가치 부각

최근 특별하고 희소성이 있는 차량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한정판' 자동차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수입차업계를 중심으로 한 '한정판 마케팅'이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기존 양산 모델의 일부 사양을 변화시키거나 특별한 디자인 요소를 덧붙인 한정판 모델도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자동차업계가 새로운 전략시장으로 꼽히는 한정판 모델을 '스페셜 에디션(Special Edition)'이나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이란 이름으로 출시하고 있다.

그동안 최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에서 극소량만 한정 생산되는 차의 경우 높은 소장가치로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부 양산형 차종의 경우에도 한정판에 대한 희소가치가 부각되면서 '한정판 마케팅'이 불꽃을 튀기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지난 3월 출시한 'SM5 LE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은 최근 명품 브랜드인 '블랙'에서 모티브를 얻은 한정판 모델이다.

차량의 외장을 블랙 컬러로 스타일링했고, 실내에는 블랙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전용 가죽시트와 메탈 그레인 등으로 모던하고 감각적으로 꾸몄다. 17인치 'LE 블랙' 전용 알로이 휠 등을 적용해 고급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8천대를 한정 판매한다.

르노삼성은 지난 2004년 4천대 한정으로 소형세단 'SM3'의 한정판 'SM3 에디션 스페셜'을 팔았고, 지난해 5월에는 대형세단 'SM7'의 한정판인 'SM7 프리미어'를 판매하는 등 '한정판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르노삼성 'SM5 LE 블랙 리미티드 에디션'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지난 11일부터 'SLK 에디션 10'을 국내에서 80대 한정 판매하고 있다. 이 차는 지난 1996년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전 세계에 첫 선을 보였던 'SLK-클래스'의 출시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한정생산 모델로 지난해 파리 모터쇼에 최초로 전시됐다.

수입자동차 브랜드 중 국내 최초 선보인 하드톱 컨버터블인 로드스터 'SLK-클래스'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46만5천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링카.

'SLK 에디션 10'은 차량 앞 패널에 새겨진 '에디션' 로고로 한정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지붕을 22초 만에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적재공간도 매우 넓어졌다. 또 최신 V형 6기통 엔진에 자동 7단 변속기도 장착돼 있다.

▲폭스바겐코리아=지난 15일 막을 내린 '2007서울모터쇼'에서 '골프 GTI'의 스페셜 한정 모델인 '골프 GTI 파렌하이트(Fahrenheit)'를 국내 50대 한정으로 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1천200대만 판매한다.

차량 뒷면에 '파렌하이트' 엠블럼을 부착했고, 스티어링 휠에는 고유 번호를 새겼다. 강렬한 마그마 오렌지색으로 채색한 내·외장과 화려한 18인치 '찰스턴(Charleston) 휠' 등이 특별한 느낌을 연출한다. '2도어'란 약점이 있지만 '골프 GTI'의 '명성'에 '한정판'이란 특별함이 맞물려 인기를 끌고 있다.

▲한울모터스=푸조의 2인승 하드톱 컨버터블(오픈카)인 '206CC'의 한정판 모델 판매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오픈카의 '불모지'인 국내에서 이 차가 1천대 판매의 기록을 세운 것은 '스페셜 에디션'의 역할이 컸다.

현재 국내 판매중인 '206CC'의 스페셜 모델로는 스포츠 브랜드 '퀵실버'의 디자인을 적용한 '206CC 퀵실버(Quicksilver)', 세계적인 여성 캐주얼 브랜드 '록시'의 디자인을 적용한 '206CC 록시(ROXY)', 3년 연속으로 '세계 랠리 챔피언십(WRC)'에서 우승한 '206WRC'의 성능을 이어받은 '206CC RC라인(RC Line)' 등 3종류가 있다.

이밖에도 혼다코리아가 지난 2월 선보인 '시빅 하이브리드'도 한정판 모델이다. 혼다코리아는 국내 하이브리드 차량(휘발유·전기 혼용차) 시장이 초기 상태인 점을 감안해 이 차량의 국내 판매 대수를 연간 60대에 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푸조 '206CC퀵실버'



'문자+숫자' 조합 자동차 이름 뜬다

BMW '750i' 아우디 'A8' 등

자동차업계에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자동차 이름이 유행하면서 차량 명칭을 둘러싼 경쟁도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차업계를 중심으로 BMW '750i'나 아우디 'A8' 등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차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 자동차 업체가 단어를 이용한 고유이름 대신 문자와 숫자 조합을 선호하는 것은 브랜드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명칭이 단순한 만큼 고객에 인지하기가 쉬운 데다 차급별로 문자는 숫자만 바뀌기 만큼 일관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우디의 경우 기존 'Audi 80', 'Audi 90' 등 숫자형 이름에서 'A4', 'A6', 'A8' 등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바뀌기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시트로엥도 기존 'Xsara', 'Xantia' 등 단어로 된 이름에서 '시트로엥(Citroen)'을 뜻하는 C를 사용해 'C1', 'C2'로 변경해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기아자동차도 유럽전력 차종인 '씨드'의 모델 이름을 '30'으로 정하고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섰다. 또 '30'에 이어 ▲'20(소형차)' ▲'10(중형차)' ▲'40(중형차)' 등을 단계적으로 출시함으로써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량 명칭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하다. 알파벳 겹서 조합된 데다 눈길을 끄는 철자는 일부에 불과해 색다른 조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 사이에 선 비슷한 이름을 두고 법정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알파벳 'M'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M'은 메르세데스-벤츠가 'ML-클래스' SUV 차량에 사용하고 있고, BMW의 고성능 차량도 'M3', 'M5', 'M러더스' 등으로 이름 붙여졌다.

여기에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인 인피니티가 세단 명칭을 'M45'로 지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MW가 자사의 'M시리즈와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인피니티는 지난 2005년에도 차량 이름을 놓고 아우디와 법정공방을 벌였다. 인피니티는 지난 1989년부터 세단에 'Q45'라는 이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아우디가 새 SUV 차량을 'Q'로 이름짓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공인중개사 전문수석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5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위)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점단점 옆 광주은행 4F

광주고시학원

면학분위기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 기회!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광주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상가 사무실 임대

위치: 8유동로타리 30m도로변, 상업지역
마지막 1층 166평 임대
(5층 중 2,3,4,5층 임대 완료)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 등 다용도 가능
위치도: 본건물, 한국노총, 구이배 이극정, 금남로, 유동거리, 유동역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